

돼지의 선택과 사육방법

윤 덕 영

1. 양돈의 유의점

축산업 중에서 양돈업은 타종류 보다 특이한 점이 많은데 이 특이점은 성장이 빠르며 다산성 이기때문에 쉽게 숫자를 늘릴수 있을뿐만 아니라 적응력이 강함과 구비 생산량이 많아 지력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는반면 다산에 못지 않게 폐사율이 높으며, 농후사료 섭취가 많아 사료비가 많이 들며, 수입이 매일 없고 계절적으로 또는 3년정도의 주기적인 가격변동 폭이 큰 단점을 가진 면도 많아 자칫하면 파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미 시작된 기존 양돈가나 시작할 신 양돈업가 들에게 유의할 사항을 열거해 보겠다.

① 사육 규모와 형태를 합리적으로 한다(주어진 여건하에 자본, 토지, 노력, 기술 등을 동원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게 치밀한 계획으로 행하며 주위 여건과 환경도 충분히 고려 하여 처음부터 크게 시작치 말며, 점차 내용의 충실과 기술습득을 기하며 서서히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 볼 수 있다).

② 돈사, 사료, 관리자 모두가 깨끗하여 질병과 기생충의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③ 사료대책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양돈 경영비의 60%가 사료비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므로 발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료를 항상 여유있게 준비하며 비싸고 배합율이 불안정한 구입사료에 의존하는 양돈을 피해야겠다).

④ 양돈기술과 지식의 습득에 노력 해야 한다(가정에서 한두마리 부업적으로 하는 안이한 자세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렵다. 이는 돼지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는데는 사육법을 모르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육의 경제적인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양관리에 대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양돈에 대한 연구도 쉬지않고 진행되어 새로운 방법이 소개되는 현실이므로 항상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해 공부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다).

⑤ 가격 변동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값이 올랐다고 규모를 늘리고 값이 내렸다고 낙망하며 줄이던지 그만두는 양돈가가 많은데 양돈업은 1년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격 앙등시에는 하락시의 대책을 세우고 하락시에는 오를때를 내다보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올해같이 전무한 호황을 맞아 작년 중반 까지의 고비를 못넘기고 그만둔 양돈가들의 후회하는 모습이 주위에 많이 있으며 너도 나도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싼 종자매와 사료구입 등의 많은 생산비를 투입하여 시작하는 그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을지 의심스럽다.

⑥ 종자돈의 선택을 잘해야 한다(현재 우리나라엔 능력이 나쁜 계통의 불투명한 잡종과 재래종이 아직도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일부 기업양돈에선 외국에서 도입된 우수한 품종이 많으므로 종돈으로 구입할때에는 기술과 신용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신중하게 구입

해야 한다. 사료와 기술관리가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나쁜 종자로서는 기대하는 성적을 얻을 수 없으니 명심해야겠다).

⑦ 관리자 선택을 잘해야 한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축산업의 대부분이 돈많은 사람들이 도시 번두리에 별장식으로 차려 놓고 친척이나 인과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경영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들의 안이한 생각으로는 친척이니까 혹은 잘 아는 사이이니까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맡겨 놓는 경향이 많은데 이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출이 많아 손해보는 경우가 많다. 이왕에 시작했으면 보다 높은 이익을 가져오는게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보다 정열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관리하며 시험을 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기사를 한명정도 책임자로 두어 좀 높은 임금을 주더라도 전적인 책임감으로 일할 수 있게 합의 보다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종종 현장에서 경영자, 책임자, 관리자 사이의 불화로 생각했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 문제로 야기되는 경우가 90% 정도이다. 현장의 화목이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니 명심해둘 문제이다).

⑧ 정성과 애정을 가지고 사육해야 한다(양돈업의 또 하나 성공의 열쇠는 바로 관리의 정성과 애정의 결집이다. 다른 분야의 경영에서는 자기가 하는 것과 남을 시켜서 하는 것은 결과가 같을 수도 있지만 양돈과 같이 생명체를 관리하는 것은 섬세하고 정확한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성과 사랑이 성패를 좌우한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보다 더 패기와 생활하며 친밀도를 높여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성공하며 진짜 기술자라고 평한다).

2. 자돈의 분류별 선택방법

비육돈만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자체내에서 자돈을 생산하여 사육하는게 현명하고 자본투

자가 적게 되므로 종돈용 자돈도 어느정도 확보 하는것이 타당하기에 종자돈 구입과 우선 생산할 비육소돈 구입에 있어 알아 두어야 할 방법을 나열해 보겠다.

① 부모의 혈통을 조사하여 선택한다.

그 혈통의 경제적, 번식, 산육능력등을 조사하는 동시에 유전적인 결함이있나 조사한다.

ex) 헤르니아, 응돈의 뇨류(尿溜), 질항(膻肛), 악항(鎖肛), 유두수부족, 비유량부족, 광폭성등.

② 부모돈의 능력조사.

ex) 산자수, 비육능력, 연산성, 포육율, 사료이용성, 도육성 등.

③ 부모돈의 체형과 자돈의 체형 비교 조사 후 선택—종돈의 최종 목표는 육돈의 생산이므로 종돈은 장래 육돈에 적합한 자돈을 많이 생산 육성 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체형을 갖춘 자돈을 선택해야 한다.

가) 몸의 길이, 폭, 깊이가 잘 발달되고 옆몸도 잘 퍼져 있고 몸이 탄력이 있는 것.

나) 생식기관과 소화기관이 잘 발달되고 건강하게 보이며 활동적인 것.

다) 발육이 좋고 피피, 피모에 광택이 있으며 채식 상태가 양호한것.

라) 유기는 형질 양호하고 정상의 젖꼭지가 2개 이상이며 배열이 균일한것.

마) 다리가 튼튼한것.

바) 품종의 특징을 갖추고 품위가 있어 보이는 것.

사) 랜드레스(Landrace)에는 중성이 많아 구분하기 어려우니 음부를 잘 살피고 질내에 돌기가 없는것.

④ 비육돈용 모돈후보는 F_1 을((1대잡종) 태해 짧은 기간에 3원교잡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늘씬하지 못하고 피부의 감각이나 위모가 너무 단단해 보이는 것은 장래성이 없으니 제외한다.

⑥ 설사가 있거나 전염병이 돌고 있는 곳에

서는 도입을 피한다.

⑦ 충분히 사료에 익숙해졌고 똥 모양이 바나나 모양인 것을 택한다.

⑧ 예방접종과 구충이 된것을 선택한다.

표. 자돈 선택시 체중으로 보는 표준

순종	60일령체중	F ₁ (1대잡종)	60일령체중
B.	13.0kg	L×H	20.3kg
Y	13.8"	L×W	19.5"
L	18.3"	W×L	17.2"
W	17.2"	Y×L	15.4"
H	16.0"	B×L	15.3"
B-버크샤 H-햄프샤	Y-요크샤	L-랜드레스	W-라지화이트

3. 구입돈(자돈)의 사육 요령

외부에서 구입한 자돈은 갑작스런 환경변화와 사료의 변화로 각종 질병과 소화불량이 유발되기 쉬우므로 도입 첫날은 물만주고 사료는 주지 않아도 무방하며 다음날은 정량의 반 정도 급여하며 점차 사료량을 늘려주어 소화율을 높여 주도록 하여야 하며 도입일로부터 약 3주정도는 본돈사와 떨어진 돈사(격리사)에 수용하여 질병의 유무를 살피고 그동안에 각종 전염병에 대한 보강주사, 구충등을 마친 다음 육성돈사 또는 비육사로 이동하는게 완벽하다. 이 과정이 끝난 다음의 사육요령은 아래 열거하는 사항을 실행하면 실패 없이 육성시킬수 있다.

- ① 성별, 품종별 구분하여 돈방을 배열한다
- ② 가능한한 비슷한 체중을 군사시킨다.
- ③ 사료의 정량급여
- ④ 자돈과 항상 접근하여 친밀도를 높이고 개성과악을 하여 적절히 맞게 관리 하여 잘 따르게 한다.
- ⑤ 사료배합과 급여에 신경을 기한다.
- ⑥ 단백질, 비타민, 무기물등을 너무 많이 주어 과비되지 않게 하며 골격을 튼튼하게 발육시킨다.
- ⑦ 설사가 오지 않도록 항생물질을 잘 배합

하여 준다.

⑧ 여름은 선선하게 겨울은 따뜻하며 냉습되지 않게 한다.

⑨ 운동을 충분히 시킨다.

⑩ 청초 급여를 한다. 겨울철엔 엔시레지.

⑪ 대형종(랜드레스)은 발이 약하니 잘 다듬어 준다.

4. 자돈의 질병 예방

구입자돈 이견 생산자돈 이견 실사를 위시한 각종 질병의 발생이 많이 따르고 있다. 이 자돈의 질병 예방이 전 양돈업의 폐사율 80%를 막을 수 있는것이니 만큼 각별히 유의하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실사에 인한 폐사나 위축은 가장큰 비중을 차지하니 명심해야 한다. 이 관리상 예방법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사료의 변질, 지방과다 사료는 급여치 않는다—설사방지.
- ② 돈사의 청결과 냉습방지—설사 및 기관지병.
- ③ 주기적인 소독철저.
- ④ 자릿것을 넣어줄 때는 항상 곰팡이가 피지 않고 신선하고 건조한 것을 넣어 준다—곰팡이성 폐염, 기관지염 방지.
- ⑤ 겨울철에 야간이나 주간에 셋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설사 및 감기.
- ⑥ 운동을 많이 시킨다—지방돈에 인한 허약체질 방지.
- ⑦ 돈의 분노를 매일 관찰하여 조기에 이상 유무 판단하여 격리치료한다.
- ⑧ 몸통을 잘 손질 해준다—피부병방지.
- ⑨ 관리자의 이동을 억제 한다.
- ⑩ 외부인 출입을 금한다.
- ⑪ 영양을 충분히 해준다—유행성폐염 (SEP)예방.

이상의 항목을 실행한다면 실패하지 않는 양돈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사육해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여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 모두가 다 성공하는 양돈가가 되어야겠다. ■